

# “타이어 이어 항공까지…호남 대표기업 추락 안타깝다”

## 광주·전남 경제계 충격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주목

채권단·금융당국 지원 당부

금호 직원들 하루종일 슬렁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그룹의 모태인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지역민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유일의 30대 기업이 사라지면서 이젠 대기업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서운함과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룹 직원들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한 채 온종일 슬렁였다.

◇호남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지역 경제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호남의 자원으로 삼았다. 중고택시 2대로 창립해 재계 7위까지 오른 저력이 자랑스러웠고, 그룹의 뿌리인 호남을 잊지 않고 제조·운송·문화·인재육성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금호그룹은 호남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룹이 어려움에 처해 안타깝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비롯한 자구책이 차질없이 진행돼 금호그룹이 다시 호남의 대표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금호그룹은 운송과 제조, 문화 등 종합적인 그룹이었다”며 “24년 전 광주비엔날레 창설때 기금 30억원을 선뜻 내놔고, 평동산단·첨단산단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

다”고 회고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주력분야 가운데 하나였던 금호타이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넘어가는 것에 지역 경제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몇 안 되는 지역의 향토기업과 대기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계와 산업계도 오랜 향토기업인 금호아시아나의 최근 상황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고속과 금호타이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기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른 그룹의 공중분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아쉬움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광주 평동산단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한 기업인은 “아시아나항공은 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이었었는데 매각을 결정한 데는 고민도 깊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아시아나 직원들 슬렁=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에 금호그룹 직원들도 온종일 슬렁였다.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처우·복지가 개선돼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혹여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상징과도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니 착잡하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내일을 기억하지 않겠느냐”고 아쉬움을 달랬다. 아시아나항공 한 직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원은 “매각설이 보도되고 실제로 이사회가 열리고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사가 온종일 어수선했다”며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대기업에 인수돼 근무 여건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고 하여간 복잡하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수

익이 개선되고 신용등급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이 아시아나를 비롯한 금호 계열사 주식이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3개 계열사만 남게 된 금호그룹 한때 재계 7위서 60위권 밖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그룹은 중견기업으로 전락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나가면 금호그룹에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3개 계열사만 남게 돼 ‘그룹’이라고 불리기에 민망하게 됐다. 한 때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1988년 2월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발전을 거듭해 현재 83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22개국 64개 도시에 76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6조 2012억원으로, 그룹 전체 매출 9조 7329억원의 64%를 차지한다. 그룹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의 지난해 매출이 각각 1조3767억원, 4232억원인 것과 비교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살림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 규모 역시 비슷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산은 6조 9250억원으로, 그룹 총자산(11조4894억원)의 60%를 차지한다. 아시아나

공이 떨어져 나가면 그룹 전체 자산 규모는 4조5000억원대로 주저앉아 재계 60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계 순위 59위 유진의 자산 규모가 5조3000억원, 60위 한솔이 5조 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한 전망이다.

금호그룹은 호남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발전해 온 대표적 향토기업이다. 1946년 4월 7일 고(故) 박인천 창업주가 중고 택시 2대로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당시 광주택시)을 설립한 것이 출발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출범시키고 대우건설과 대한통운까지 인수하면서 순위가 재계 7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되팔았다. 2014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그룹이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며 재계 25위권으로 밀려났다.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되면 금호그룹은 경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실탄 넉넉한 SK 1순위 후보…한화·애경·CJ 등도 ‘주판알’

### 새 주인 누가 될까

매각자금 1조~2조원 예상

항공업과 시너지 고려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어느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가에서는 SK, 한화, CJ, 애경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인수를 면밀히 검토하며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매각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최소 1

조원에서 2조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 지분의 현재 시장 가격이 3000억원을 웃돌고, 여기에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있어 매각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금융가와 재계의 계산이다.

먼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수 가능 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은 작년 7월부터 이미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흘러나와 이에 대한 공시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SK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수펙스추진협의회 글로벌사업개발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행보가 항공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자금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정유, 물

류, 레저, 호텔, 면세점, 통신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SK그룹 측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화그룹도 항공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설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 한화 기계 부문 항공사업도 인수했다. 한화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유압·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중 착륙장치 등 사업을 한다. 한화는 작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던 전력도 있다.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긴 했지만, 그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이 많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그룹도 아시아나 인수 시 시너지 효과 등 손익계산에 부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경이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전략적투자자나 재무적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과 롯데그룹도 물류업을 기반으로 항공운송 사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과 CJ그룹 역시 “전혀 계획이 없다. 논의 중인 내용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면세점 사업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신세계그룹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전력도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1588-1543·010-3645-1479